



## 국산콩 유감

2004년에도 예외 없이 국내의 콩 생산은 형편 없이 줄어들어 버렸다. 따라서 국산콩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국산콩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가격도 적정선을 초월하는 상상 이상의 수준이다. 더구나 콩은 1년에 한번 수확되고 이것을 다음 햇콩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수확시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산콩으로 하는 사업은 지탱할 수 없다. 농림부와 농협이 지원책을 동원하여 생산을 장려하여 왔으나, 생산 농민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콩 수요량은 160만톤 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기름용이나 사료용이지만, 이중에서도 우리 식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식용콩은 약 30만톤이며 콩나물용은 약 6만톤이다. 우리는 이 양의 대부분을 수입콩에 의존하고 있다.

기름용이나 사료용은 이미 포기한 상태지만, 두부와 된장과 콩나물 등에 쓰이는 식용콩 만이라도 자급자족을 하자는 운동이 한 때나마 있었고, 농림부에서도 농산물 개방에 대비,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수매가격을 보장하며 생산을 장려하여 왔고, 심지어 논콩까지 장려를 해왔다. 그러나 시중의 국산콩 가격이 상상 이외로 높은 걸 보면, 별로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듯하다. 아마도 생산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 보장과 가격보장 등의 지원이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들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현재 콩의 소비형태로 보면 두부용 콩 거의 95%와 콩나물콩 85%는 이미 외국산 수

입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산콩의 수요가 있고 그 양도 차츰 늘어나는 실정이다.

농협 마트나 대형마트 등에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국산콩으로 만든 것만 받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 차별화 전략이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산콩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이 가격이 국산콩 유통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는 국산콩의 정상적인 생산 장려와 적정선 가격의 유통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며 결국은 씨가 말라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국산콩 확보가 어려운 업체들은 외국의 유기농 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여야 차별화 상품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은 그래도 국산콩 만을 고집하는 업체들이 있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살아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국산콩 사용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산 장려의 방법과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생산 농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팔을 걷어 부치고 생산 장려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시를 받는 지역농협들도 관심이나 사명감이 부족한 듯하다.

콩을 수요로 하는 단체들도 수입콩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것은 국산콩을 쓰는 사람들과는 경쟁상대일 뿐이므로 관심이 없다. 이것이 오늘의 국산콩 현실이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료출처: 장병한 님, (사)대한두채협회 홈페이지 토론마당에서(2004. 11. 21)